



협회소식

金重業 會員渡日

本協會 會員 金重業 (金重業建築研究所長)氏는 지난 2月 18日 서울 양동에 세워질 國際 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屋 (지상 30층)의 설계에 있어서 技術調査次 渡日 했으며 2月 末에 귀국했다.

金萬盛 會員渡日

本協會 會員 金萬盛 (連合建築所長)氏는 동방청량음료주식회사 사옥 建立에 관해 日本의 동방자매회사인 Pepsil-Cola 회사의 초청으로 技術研究 및 日本 建築界 視察를 目的으로 3月 9日 渡日 했으며 3月 23日 귀국했다.

徐琮鎬氏 渡日

本協會 贊助會員인 保光 알루미늄의 徐社長은 지난 2月 15日 經濟使節團의 一員으로 渡日 약 1개월간 日本의 건축관계 제 생산업체를 시찰하고 3월 중순에 귀국했다.

本協會 監查實施

本協會는 1968年度 상반기의 정기 자체감사를 지난 2월 23일 본부 부터 실시 4월 11일까지 각 市道支部의 監查를 끝낼 예정이다.

第二回資材展示會開催

本協會 事業部는 建設週間을 맞이하여 4月 1일부터 4月 30일까지 시민회관 옆에서 第2회 전국우수건설자재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올해는 약 60개 업체의 1,000여 종목의 건설 자재가 출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同 展示會는 建設週間 行事의 一環으로 建設部를 비롯한 16개의 政府關係部處와 團體의 協助를 얻어 개최되는데 이는 國內에서 生産되는 國產建設資材의 優秀性과 工事面에서의 活用度를 높이고 宣傳普及함으로 보다 더 좋은 建設資材의 生産意慾을 鼓吹시키며 새로운 資材의 開發과 製品의 質의 向上을 圖謀하고 規格化를 促進하고자 함에 目的이 있는 同 展示會는 顧問에 丁一權 國務總理, 朴忠勳 副總理兼企劃院長

官等 16名の 關係長官과 團體長이 위촉되었으며 名譽會長에 朱源 建設部長官이 위촉되고 會長에는 本協會 金在哲 會長, 副會長에 本協會 康晋參, 車景淳, 姜大雄 理事와 金源安 本協會 서울市支部長等이 重任을 받게 되었다.

贊助會員 3個社 加入

本協會 定款의 事業目的에 贊同하여 定款에 의해 다음 3個社가 加入했다.

☆ 京城工作株式會社 代表理事 朴得默 서울 龍山區 元曉路 1街 104 ④ 2761-2. ④ 5761. (加入日字 1967年 12月 26日)

☆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代表理事 崔泰燮 서울 西大門區 西小門洞 75 (23)7141-5 (加入日字 1968年 1月 9日)

☆ 東方火災警報器株式會社 代表理事 馬鍾道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00 (52)7789. (53)8789 (加入日字, 1968年 3月 26日)

釜山 慶北 濟州

支部 事務室移轉

☆ 釜山市 支部 68年 2月 21日 支部 事務室을 釜山市 中區 新昌洞 1街 8 (釜山銀行 本店 3층 子 부산상공회의소 3층)으로 移轉 電話 ② 9944.

☆ 慶北支部 68年 2月 21日 支部 事務室을 大邱市 中區 中동 30 (이강백 병원 3층)으로 移轉 電話 ② 2226

☆ 濟北支部 68年 1月 13日 支部事務室을 濟州. 市 一徒里 1417번지로 移轉 電話 503

會員 動靜

☆ 李重熙 (서울市支部)會員은 事務室 名稱을 中央建築技術公社로 變更함

☆ 朴柱洙 (서울市支部)會員은 事務室을 中區. 草洞 10의 1로 住所를 移轉함

☆ 李喜泰 (서울市支部)會員은 事務室을 中區. 明洞 2街 87의 3으로 住所를 移轉함

☆ 金無着 (서울市支部)會員은 金相員으로 改名함

☆ 具玠會 (本協會 監事) 事務室 電話番號를 (72)0081로 變更

☆ 尹內鎮 (서울市支部)會員은 尹懿炳으로 改名함

☆ 李東煥 (서울市支部)會員 玆親 2月 25日 13時 金門都에서 回甲宴을 갖다

☆ 李春相 (서울市支部)會員 弟 春吉君 2月 27日 孫福王양과 天道教 예식장에서 결혼하다

☆ 李康銖 (서울市支部)會員父親 2月 6日 18時 自宅에서 別世하다.

☆ 宋璋鎬 (忠南)員會 2月 17日 作故함

PAE社에 外注同意

= 政府綜合廳舍 建築技術用役 =

지난 2月 14日 財務部는 總務處가 協議 要請한 政府綜合廳舍新築을 위한 外國技術用役 요청을 原案대로 同意했다. (本誌 68年 1月號참조)

이 技術用役은 總務處가 67年 10月30日에 政府綜合廳舍 地質 및 地盤 調查 設計監督業務를 委囑한바 있던 美國 P. A. E. 인터내셔널 會社와 元貨 43,703,437원과 外貨 227,361弗 등 都合 106,227,797원으로 隨意契約을 맺으려는 것으로 이번 用役業務 內容은 設計, 調達 圖書作成 工事監督등으로 되어 있다.

建 議 文

政府綜合 廳舍設計 및 建立에 關하여

尊敬하는 朴正熙 大統領 閣下

歷史的인 政府綜合廳舍 設計 및 建立에 따른 最近의 심각한 事態에 關하여 삼가 大統領 閣下 忠言을 올립니다.

바야흐로 祖國近代의 힘찬 意志가 國土 全域에 메아리치는 이때 閣下의 行政府는 大韓民國의 밝은 未來를 象徵하는 百年大計의 歷史的인 政府綜合廳舍計劃을 착수 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計劃은 全 國民의 관심사이며 특히 建築分野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중대한 使命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歷史的인 建築物은 그나라 그 時代의 文化와 技術의 集約的 所產으로 후세에 남고 또한 評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政府綜合廳舍의 所管部處인 總務處가 지난해 그 設計案을 公募했던 것은 그 重要性에 비추어 적절한 處事 였습니다. 그리하여 佳作 當選者였던 本會의 羅相振 會員이 一千六百萬원으로 本設計를 계약하는 한편 기초공사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총무처에선 명백한 이유없이 따로 外國人 用役團 P. A. E. 에게 八百萬원을 주어 임의로 前番의 設計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不法的이라고 하는 것은 「國內法인 建築士法 第二五條에 建設部長官의 免許를 받은 建築士만이 設計 및 用役契約을 할 수 있다고

明示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道義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二重契約입니다.

P. A. E. 의 不法的인 介入과 國際建築社會에서 그들의 道義的 過誤는 앞으로 本會에 의하여 國際建築聯盟에 提訴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國內建築人들을 啞然케한 것은 外國人과의 계약 금액이 國內의 原契約者와의 契約金額의 八倍에 가까운 무려 二億六百餘萬원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國庫損失일뿐 아니라 한국의 現代건축문화와 技術을 國內의로 不信 및 모욕하는 處事입니다.

우리는 P. A. E. 의 設計一平面, 立面, 構造를 檢討하고 나서 國內의 原設計가 모든면에서 명백히 우수하다는 결론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차 총무처 당국에 그 是正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재고는 커녕 강행할 태세입니다.

이 時點에서러 우리는 최후의 방법으로 大統領 閣下께 進言합니다.

子孫萬代에 걸쳐 大韓民國을 상징할 정부중樞청사가 國內 건축계의 한결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름없는 外國人用役團에게 권이 맡겨서 이룩되었다는 수치와 不名譽가 없게 되기를 閣

下와 함께 빌며 본회에서는閣下께 직접 기술적 설명을 드려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아울러 伏願하나이다.

1968年 2月 21日

대한 건축사협회 정부종합청사건축대책위원회

代表 金 在 哲

辭 退 書

總務處長官貴下

本人들은 貴長官이 目下 隨行中에 있는 政府 綜合廳舍는 우리나라 有史以來 初有의 大建物이며 後世에 남길 우리 建築文化의 結晶體가 될 것이기 때문에 微力하나마 우리들의 知識과 經驗은 勿論 誠心 誠意를 다하여 貴下를 補佐하여 上記 建築物의 完工에 有終의 美를 거두려는 意圖下에 其間 數次에 걸쳐 設計面에 攄하여 貴長官의 諮問에 應하여 왔으나 이제 다음과 같은 理由에 依하여 顧問職을 辭退하는 바입니다.

1. 其間 諮問 速中에 惹起된 諸般 事項에 비추어 보건대 貴下가 意圖하는바 建物の 平面 立面 및 構造計劃 等은 本人들의 知識과 經驗에 비추어 不合理한 點이 많아 이의 根本的인 修正이 要請되어 왔는바 荷等의 反應이 없이 進行되고 있다는 點

2. 2月 15日 字 經濟通信의 報道에 依하면 貴下는 其間 우리들의 勸告를 無視하고 우리나라에서 建築設計用役을 法으로 隨行할 수 없는 美 PACIFIC ARCHITECTS & ENGINEERS INTERNATIONAL Co와 上記 綜合廳舍의 設計 監督 및 調達 等에 關한 契約을 締結할 意圖下에 財務部의 同意를 얻었다는 바 萬一 이것이 事實이라면 其間 顧問會議에서 外注는 中止하고 國內 建築家들로서 再設計를 한다는 約束을 履行하지 않은 點

以上の 點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들 本來의 意圖와는 전혀 相異한 方向으로 進行되는 사실로 저희들이 고문으로서 하등의 意義가 없음으로 辭退하는 바입니다. 1968. 2. 19

金在哲, 金熙春, 洪鵬羲, 金正秀, 尹張燮 羅相振

聲 明 書

有史以來 처음으로 計劃되는 政府綜合廳舍新築 工事 設計는 韓國의 技術을 널리 外國에 까지 떨칠수 있는 民族主體性의 確立과 아울러 우리 建築家들의 머리와 손으로 우리의 政府綜合廳舍가 이루어 진다는데에 큰 意義를 느끼고 韓國의 建築家들은 그간 所管部處인 總務處에 誠心誠意로 協助 協力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總務處는 外國用役團의 提議에 依하여 確實한 計劃도 없이 原設計를 既히 一部 任意 變更 施工하여 온 바를 合理化시키고저 原設計費의 八培나 되는 莫大한 用役費를 浪費하면서 까지 用役契約을 強行한다는 報道에 接하니 驚로 을 禁할수 없읍니다.

우리 建築家들은 그간 外國用役團의 計劃案이 不合理하여 平面, 立面, 構造 等に 결함과 矛盾이 多大함을 指適하고 數次 再考할 것을 提議하여 왔으며 總務處도 그 意義를 充分히 고려하여 外國人에게는 用役을 맡기지 않을 것을 數次 公言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突變한 今般 處事는 韓國建築家와 技術者들은 勿論 一般 國民까지 愚弄하는 것이므로 우리 建築家들은 政府에 대하여 이의 是正을 嚴重히 要求하는 同時에 其간의 經緯와 外國用役團의 計劃案에 對한 眞摯한 技術的인 檢討를 하고 져 全國의 建築家 및 技術者를 爲始하여 一般國民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公開討論會를 열고저 하오니 많은 聲援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茲에 聲明하는 바입니다.

1968. 2. 19

大韓建築士協會 政府綜合 廳舍建築對策委員會

委員長 金在哲, 委員 金重業, 金東珪, 宋攸求, 李天承, 姜明求, 姜奉辰, 姜大雄, 康晋參, 車景淳, 安仁模, 金源安, 金壽根, 裴基滢, 金熙春, 金正秀, 洪鵬羲, 成性權, 邊普煒